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여성위원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기
- 위령 성월, 연옥 영혼들을 위해 묵주기도 1단 바치기

(녹)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2022. 11. 6.)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성자의 말씀을 착한 행실로 열매 맺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마카베오기 하): 그 무렵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심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둘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개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 제2독서(테살로니카2서):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음(루카):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갈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 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계명의 길 곳곳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봉 헌: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517 내가 절망 속에
영성체: 151 주여 임하소서 / 226 하느님 자비하시니
파 견: 225 주여 돌보소서

공지 사항

♣ 밀라노 한국 순교자성당 홈페이지 오픈

- 주소 : www.cmilano.org

신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당 25년사 자료 수집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고자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본당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올리실 수 있습니다.

♣ 금일(11/6), 김성현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미사 집전해주십니다.

♣ 차주(11/13)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 (축일 : 11/9)

♣ 모임/회의

- 11월 13일(일)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 후 사목회의.

♣ 2022년 성가대 음악회

- 일시 : 11월 20일, 주일미사 후
- 장소 : Oratorio del Gentilino.

♣ 자모회 공지

수험생들 어머님들과 함께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한 기도 모임

- 일시: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노베라스코성당 성전
- 문의사항은 자모회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 봉사자

	오늘(6일)	다음 주일(13일)
제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변의용 베네딕토
제2독서	박수정 글라라	구희선 스텔라
복사	강윤이 스텔라	안태오 마태오
복사	박동현 요한보스코	안서현 안젤라
계단·화장실	강한 프란체스코	변의용 베네딕토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43.35 • 교무금 €900.0